스타 감독, 막강 주연 날개 달고 화려한 부활 꿈꾼다

극장가, 또 술렁이겠네

그들은 침체기에 빠진 한국 영화계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작품성과 흥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던 스타 감독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이름만으로도 너끈히 관객들을 끌어 모으는 스타 감독들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관객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박찬욱, 봉준호, 최동훈. 흔히 '충무로 빅 3'로 꼽히는 세 사람은 '타고난 이야기꾼'답게 시나리오를 직접 쓰고, 여기에 '톱스타'라는 막강한 날개를 달았다. '스타 감독'들의 작품엔 주연만 막강한 게 아니다. 조연들 면면 역시 화려하다.

▲최동훈과 강동원

'범죄의 재구성', '타짜' 단 두편으로 관객들이 가장 신뢰하는 감독이 된 최동훈 감독은 2년여의 공백 끝에 최근 신작 소식을 전했다.

최 감독의 차기작은 고전소설 '전우치전'을 모티프로 한 '전우치'. 누명을 쓰고 그림 족자에 갇힌 조선시대 도사 전우치가 500년 후인 현재 봉인에서 풀려나 세상을 어지럽히는 요괴와 맞서 싸우는 활약상을 그린 판타지 액션물이다.

최 감독의 낙점을 받은 배우는 강동원이다. '늑대의 유혹' 등을 통해 '청춘배우'의 인상이 강했던 강동원은 이명세 감독의 '형사', 송해성 감독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등을 거치면서 존재감을 키우기 시작했다. 강동원은 도술 실력은 뛰어나지만 수행보다는 풍류와 여자에 관심이 많은 천방지축 악동 전우치로 출연하며 임수정이 조선시대 전우치가 사모했던 여인을 닮은 코디네이터 서인경으로 호흡을 맞춘다.

또 최감독의 두 작품 모두에 출연했던 '추격자'의 김윤석은 도학이 깊기로 이름난 도사 화담 역을 맡아 강동원과 대결구도를 형성하며 전우치의 조력자이자 친구인 초랭이 역에는 유해진이 기용됐다.

▲봉준호와 원빈

'플란다스의 개', '살인의 추억', '괴물'로 벌써 한국영화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봉준호 감독은 '괴물' 이후 2년 동안 공백기를 깨트릴 작품으로 '마더'를 선택했다.

'괴물' 흥행 후 레오 카락스, 미셸 공드리에 등 유명 감독들과 도쿄를 주제로 한 옴니버스 영화 '도쿄!' 가운데 한편을 연출했던 봉준호 감독은 칸 영화제 초청을 받아둔 상태. 4년 전부터 구상한 작품으로 알려진 '마더'는 살인 누명을 쓴 아들을 구하기 위한 어머니의 고군분투를 그린 작품이다. 현재 드라마 '엄마가 뿔났다'에 출연중인 배우 김혜자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영화에서 엄마의 끝없는 사랑을 받는 아들 역으로 꽃미남 배우 원빈이 캐스팅돼 영화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중견 배우 김해숙과 엄마와 아들로 출연했던 '우리 형'에 이어 4년만에 다시 '아들' 역을 맡은 원빈은 제대 후 '첫 작품'으로 '마더'를 택해, 성숙한 연기를 보여줄 예정이다.

최동훈-강동원 등 '환상 콤비' 침체기 영화계 구원투수 자처

▲박찬욱과 송강호

'공동 경비 구역 JSA'를 거쳐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등 일명 '복수 3부작'으로 충무로와 관객들이 가장 기대하는 감독이 된 박찬욱은 오랜 파트너 송강호와 손을 잡았다.

전작인 임수정·비 주연의 '싸이보그지만 괜찮아'가 관객과의 교감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의 파워는 유효하다.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연기파 배우이자 흥행카드인 송강호는 치명적인 유혹에 빠진 흡혈 사나이의 이야기를 그린 '박쥐'에서 파격적인 연기를 보여준다.

여자 주인공으로 김옥빈이라는 다소 의외의 카드를 빼든 박찬욱은 '공동 경비 구역 JSA'와 '복수는 나의 것'에서 호흡을 맞췄던 신하균도 함께 캐스팅했다.

그밖에 또 한명의 스타 감독인 김지운 작품으로 송강호·정우성·이병헌이라는 황금 캐스팅을 자랑하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은 조만간 열리는 칸영화제에서 그 첫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최동훈 감독의 신작 '전우치'의 주인공으로 낙점 받은 강동원.

주목! 이 영화 '스피드 레이서'

'비' 바람 타고 흥행 돌풍 예고

영화 '매트릭스' 시리즈를 통해 시각 혁명을 일으켰던 워쇼스키 형제의 신작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마하 고고고'(우리나라에서도 '달려라 번개호'라는 제목으로 방영됐다)가 원작이다.

특히 우리나라 팬들에게는 가수이자 배우로 활동중인 '비'의 출연으로 일치감치 올 최대 기대작으로 꼽혀온 작품이기도 하다.

어려서 부터 레이싱에 관심이 많았던 스피드 레이서(에밀 허쉬)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형 렉스의 대를 이어 아버지가 만든 회사인 레이스 모터스에 소속돼 레이싱계를 휩쓴다.

대기업 회장의 스카우트 제의를 뿌리친 스피드 레이서는 토고칸 모터스의 리더 태조(비)와 정체불명의 레시서 X(매튜 폭스)와 팀을 이뤄 전설의 경주 코스이자 죽음의 경주로 꼽히는 '카사 크리스토'에 참가한다.

크랭크 인 1년 전부터 100여 개 이상의 디자인 작업을 거쳐 완성한 스피드 카 '마하 5'와 공중을 가로지르는 레이싱 카들의 액션 스턴트와 모든 배경을 만들어낸 첨단 CG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12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화명	내 용
스피드 레이서	비의 할리우드 데뷔작. 일본 애니메이션 '마하 고고고'를 원작으로 한 오락물.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명탐정 코난 베이커가의 망령	14년 넘게 연재 중인 일본의 대표적인 장수 만화인 '명탐정 코난'을 원작으로 했다.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프라이스리스	백만장자와 결혼을 꿈꾸던 '작업녀'의 진정한 사랑 이야기. 15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콜롬버스(상무), CGV(상무)	
서울이 보이냐	'집으로'의 유승호가 엄마를 찾아 서울로 떠난다. 전체 관람가.
메가박스, 콜롬버스(상무), CGV(첨단)	
아이언 맨	마블코믹스의 원작 만화 '아이언맨'을 SF 액션 장르로 영화화했다.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가루지기	봉태규 주연의 부실한 청년 新변강쇠 이야기. 18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비스티 보이즈	유흥가에서 호스트로 일하는 젊은 청춘들의 이야기. 18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호튼	작고 여린 마음을 가진 코끼리 호튼 이야기. 차태현이 호튼의 목소리를 연기했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 무등, 콜롬버스(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엔터, 하미	
포비든 킹덤	중국 액션배우 성룡, 이연걸 주연의 무술영화. 12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테이큰	딸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펼쳐진다. 18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스트리트 킹	키아누 리브스가 형사로 출연해 LA의 밤과 낮을 리얼하게 보여준다. 18세 관람가.
하미, 엔터	
킬 위드 미	살인현장이 UCC로 생중계 되는 스릴러 영화. 18세 관람가.
엔터	
나의 특별한 사랑이야기	한 남자와 세 여자가 진정한 사랑을 찾아 떠나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 15세 관람가.
엔터	